

동지해운 기관부 초임 3등기관사에 지원한 문성준입니다. 저는 액화천연가스 운반 분야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여, 장기적으로는 동지해운 LNG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장기 승선하며 회사를 이끄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LNG선 실무 경험, 정직·성실한 태도, 협업과 리더십 역량을 바탕으로 동지해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실습을 통해 약 5개월간 터빈 LNG 운반선에서 실기사로 근무하며, LNG선의 구조와 운전, 감시 업무를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실습 후반에는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초임 3등기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3기사님의 일일 데이워크와 점검 루틴을 따라가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LNG선 3등기관사로서 필요한 기본 시야와 책임감을 갖추었고, 동지해운 LNG선에 승선하더라도 빠르게 적응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실습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실수나 고민되는 상황이 생기면 숨기지 않고 즉시 보고하는 습관을 지켰고, 매일 실습 노트와 후기 노트를 작성하며 그날의 작업 내용, 배운 점, 개선할 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꾸준함을 인정받아 SK해운 실습 당시 우수 실습생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직한 보고와 철저한 기록이 곧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믿으며, 동지해운의 선박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방식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사람들과도 금세 어울리며, 조용한 동기에게도 먼저 말을 걸어 팀이 함께 움직이도록 돕는 편입니다. 실습선 한바다호에서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동기와 함께 설비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작업 요령을 알려주며, 실수로 위축된 동기에게는 다 같이 배우는 과정이라며 격려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대학에서는 졸업 논문 팀장을 맡아 연구 방향을 정하고, 팀원들의 강점에 맞춰 자료 조사, 계산, 데이터 정리, 발표 준비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겼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역할을 조정하며 끝까지 결과물을 완성한 경험은, 선·후배와 함께 선박 업무를 분담하고 조율해야 하는 기관사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해운은 LNG 운반과 가스 물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전문 선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스 타입 터빈 LNG선 실무 경험과 정직·성실한 태도, 그리고 협업과 리더십 역량을 바탕으로 같이 타면 믿음이 가는 초임 3등기관사가 되고자 합니다. 승선 초기에는 담당 설비와 계통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정비와 일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사고 운항에 기여하겠습니다. 나아가 LNG 분야에 특화된 기관장으로 성장해 동지해운의 핵심 LNG 선박을 책임지고, 장기 승선을 통해 회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기관사가 되겠습니다.